

특별기고

장동언

기상청장



‘역대 최고기온’, ‘최악의 폭염’과 같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 지난해 6~8월 전국의 평균 기온·최저기온이 역대 1위, 평균최고기온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 중순까지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에는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다.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여름은 ‘더운 계절’을 넘어 ‘뜨거운 계절’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국민 일상·생명 위협하는 재난

폭염이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국내 온열질환자 수는 2020년 1,078명에서 2024년 3,70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9명에서 3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폭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 것이다.

폭염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에 취약한 고령층, 냉방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 고온의 작업환경에

폭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

노출된 야외 근로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 자체를 완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현재 폭염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폭염의 강도를 줄이는 저감 정책, 다른 하나는 폭염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는 적응 정책이다. 녹지 확대, 도로 살수차 운영, 무더위쉼터 마련,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대책을 적용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해답은 폭염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역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역의 폭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폭염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상과 사회·경제 데이터를 융합해 폭염 취약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위성영상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지역 내 기온 분포를 30m 격자 단위로 상세화하는 모델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지표 특성을 반영한 상세 열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도심 내에서도 건물, 도로, 녹지 등 토지피복 유형에 따라 열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 지도를 활용하면 폭염 ‘핫스팟’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광주 지역의 상세 열 분포와 고령 인구수, 응급의료기관 접근성, 버스정류장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행정동과 집

계구 단위의 폭염 취약성 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지표별로 폭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구역도 함께 제시해, 지역 맞춤형 폭염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폭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낮 시간대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확충하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 있는 버스정류장 중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스마트 정류장을 조성하는 등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폭염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광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물인 광주 상세 열 지도와 폭염 취약 지수는 진흥원이 운영하는 도시평가모델 시스템과 연계돼 광주시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기상청, 폭염 취약성 연구

앞으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광주의 폭염일수는 지금보다 적게는 33일, 많게는 97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의 흐름을 멈추기는 어렵지만, 지피지기의 피해를 발취해 폭염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기상청은 지역과 협력해 상세한 폭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 모든 국민이 폭염과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무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기차 산업, 중국 질주를 넘어야 할 시간

안정성을 확보했다. CATL 역시 리튬 채굴부터 고성능 셀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실현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약 300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충전 인프라를 대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확충했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번호판 우선 발급, 통행 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 내수 시장을 급속도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기반은 곧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져 생산 단가 절감과 해외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모델 다양화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3,000만원 이하의 경형차부터 고급 SUV까지 약 100여 종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특히 BYD Dolphin, Qin Plus, Seagull 등 보급형 차량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유럽과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전체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관세 장벽도 효과적으로 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전기차 산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또 다른 과제다. 배터리 기술 내재화, 보급형 전기차 모델 확대, 프리미엄 서비스 차별화, 충전 인프라 고도화 등 전방위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성과 품질, 그리고 A/S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기차 구매 이후의 사용 경험 전반을 설계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차량 구독, 장기 리스, 배터리 교환형 플랫폼 등 새로운 소유 모델을 통해 소비자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 부품업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고도화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국내 전기차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에너지와 기술, 환경과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힌 미래 산업의 플랫폼이다. 이제는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진화하며 각 국의 자동차 산업은 경쟁 중에 있다. 지금 우리는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갈림길에 서 있다. 속도와 전략,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승부에 서 결코 늦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위반 ‘토렌트’ 이용 절대 금물

때 A컴퓨터는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해 주게 되고 이러한 P2P방식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모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처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또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저작권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살 때 알맞은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듯 저작물 또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김수연 장흥경찰서 수사과 경사

1989년 6월 29일 창간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사전투표 참여로 민심의 매운맛 보여주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광주·전남에는 광주 96곳, 전남 298곳 등 모두 394개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유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지 정치적 유불리나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폐지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지역민의 관심은 아무래도 투표율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전남이 5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도 48.27%로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평균은 36.93%였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탄핵,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광주·전남 모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첫날의 투표율을 봤을 때 적정할 가능성이 높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

도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자며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도 골목골목을 돌며 사전투표를 주문했다.

각 정당 후보들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첫날 사전투표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대학가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선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수 주삼동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다.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정치권의 잘잘못을 심판할 수 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아직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오늘 꼭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

전남도 미래차 지원 성과로 이어져야

전남도가 총 19억2,000만 원을 들여 올해부터 2년간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담해 전남형 미래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역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R&D) 부문은 기업당 최대 5억 원(연간 2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비 R&D 부문은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 홍보전시 등 실질적인 시장진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업당 연 3,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중점 지원 과제는 전기차 전력변환 모듈, 가상엔진용 시스템, 초소형 전기차용 통합제어기, 전기차 전용 진단기, 이륜차 전동화 기술 등이다.

참여 기업은 도비 지원액 2억 원 당 1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의무를 진다. 모든 과정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 기술개발 성과가 매출 증대와 투자 유치, 수출 확대 등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서면과 발표 평가를 거쳐 6월 말께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지역 기업 지원사업은 미래차 전환시대를 선도할 지역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고용과 수출, 산업 생태계를 연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제대로 안착하고 발전해야 전남 경제도 활력이 넘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중심으로 한 솔라시도 미래차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보안 인증센터,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와 인증·평가 체계 구축 등 후속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데 있다. 이번 미래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되 육성을 가려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을 빨래하는 시간

김민철

중략 -

오늘도 벼는 매일매일 깨끗한 빛깔을 입고
논물 위에서 살랑살랑 뛰어나는데

종중 하루 종일 빨래가 쌓이는
기간이 싫었다
새똥이 가슴팍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머구름이 손발까지 감게 물들면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우렁이는 논두렁 밖으로 나가
울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허리 근육이 얇은 할머니를 생각하며
갑비뻐 하나를 잃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렁이는 온몸을 적시며 기어
이 빨래를 끝낸다

못줄의 간격을 기억하고 있는 벼들이
벼슬을 뽕송 갈색 옷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한다

제2회 평택 생태시 문학상 대상

김미경의 시 이야기



시 “논을 빨래하는 시간”은 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생태환경에 대한 서사인데 우리 사회 환경 문제에도 시선을 놓게 하는 다층적인 면을 지닌 좋은 시라고 본다.

수물을 먹고 사는 시작 화자 “우렁”은 유기농 벼 재배에 유익한 존재다. 모내기기가 갖 끝난 논은 연둣빛 벼를 어린 아이로 치환했으며 이시기에 회오리 물살 모양 “우렁”은 “세세 가루”가 되어 어린 벼의 밑동과 옆에 묻은 뽕판을 씻기고 수초를 없애준다.

“벼는 매일매일 깨끗한 빛깔을 입고 /논물 위에서 살랑살랑 뛰어노는데”는 최적인 생태 환경을 만들어 준 우렁 덕분에 벼의 포기수가 늘어나고 줄기가 튼튼해져서 논이 점점 짙은 초록으로 덮여가고 있음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준다.

마지막에는 “우렁”을 의인화 한 시의 정황을 통해 농촌 인구 소멸로 인해 연세 드신 분들이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음을 드러낸다.

“논두렁 밖으로 나가 울고 싶을 때가 있었다//우렁이는 온몸을 적시며 기어이 빨래를 끝낸다”에서 “우렁”이 과도한 일로 고단하지만 허리와 근육이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자기의 벼찬 노동을 잘 마무리한다고 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시작 화자 “우렁”을 통해 약한 자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따뜻한 정서를 공감하게 하고 조화로운 자연 생태계 환경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한다.

마지막 연, “못줄의 간격을 기억하고 있는 벼들이”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다. 이런 건강한 생태 환경 분위기 속에서 어렸던 벼가 장성하여 이제는 황금별판이 될 날을 향해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 생태환경도 이제 건강하게 푸른 벼논처럼 되기를 기대한다.

시인·전남매일 신춘문에 당선자